

이건희컬렉션 한국 근현대미술 특별전



쉽게 읽는 전시

어린이, 발달장애인, 어르신 등 누구나
쉽게 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글쓰기로 전환한 전시 안내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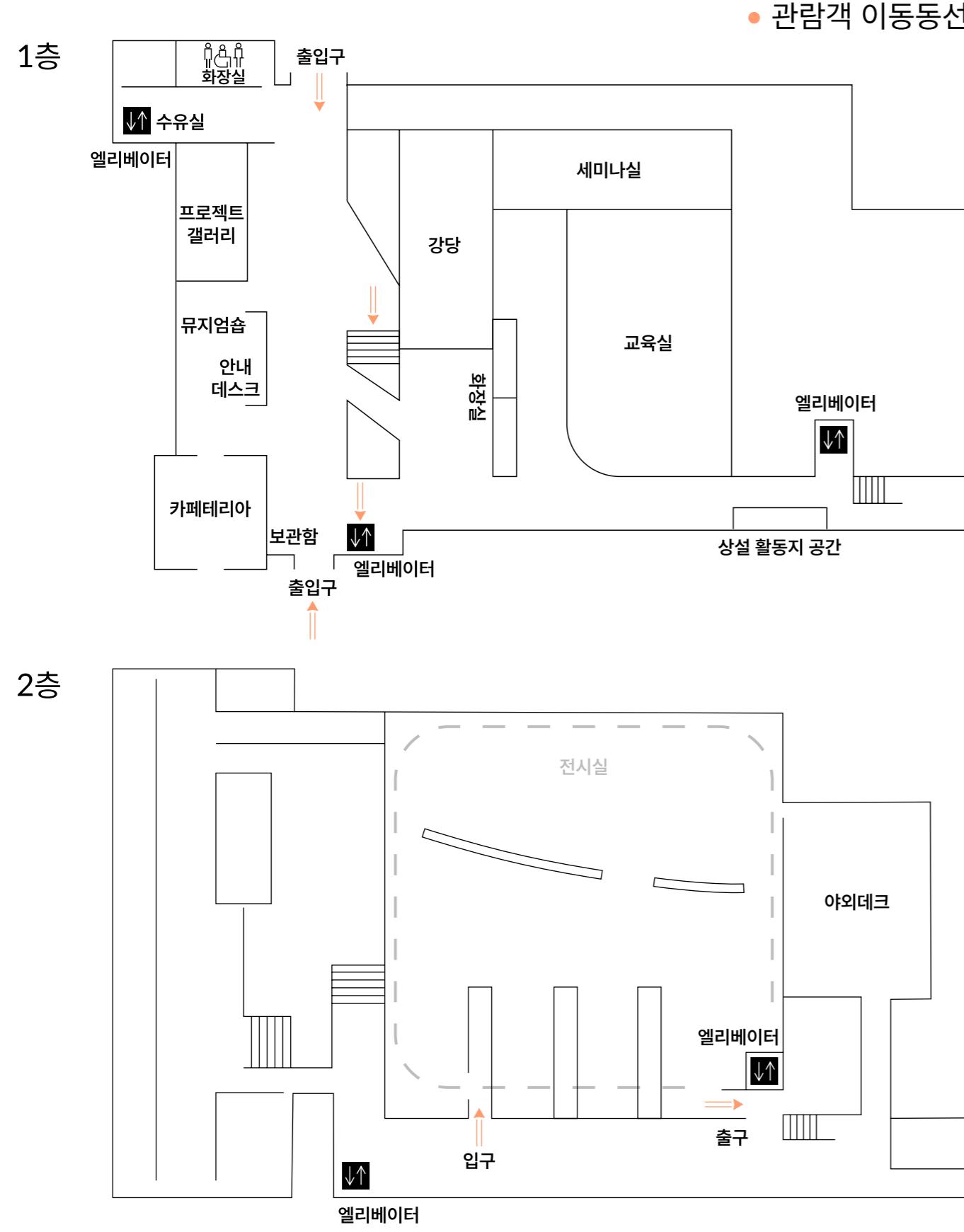
이건희컬렉션 한국 근현대미술 특별전

《사계》

관람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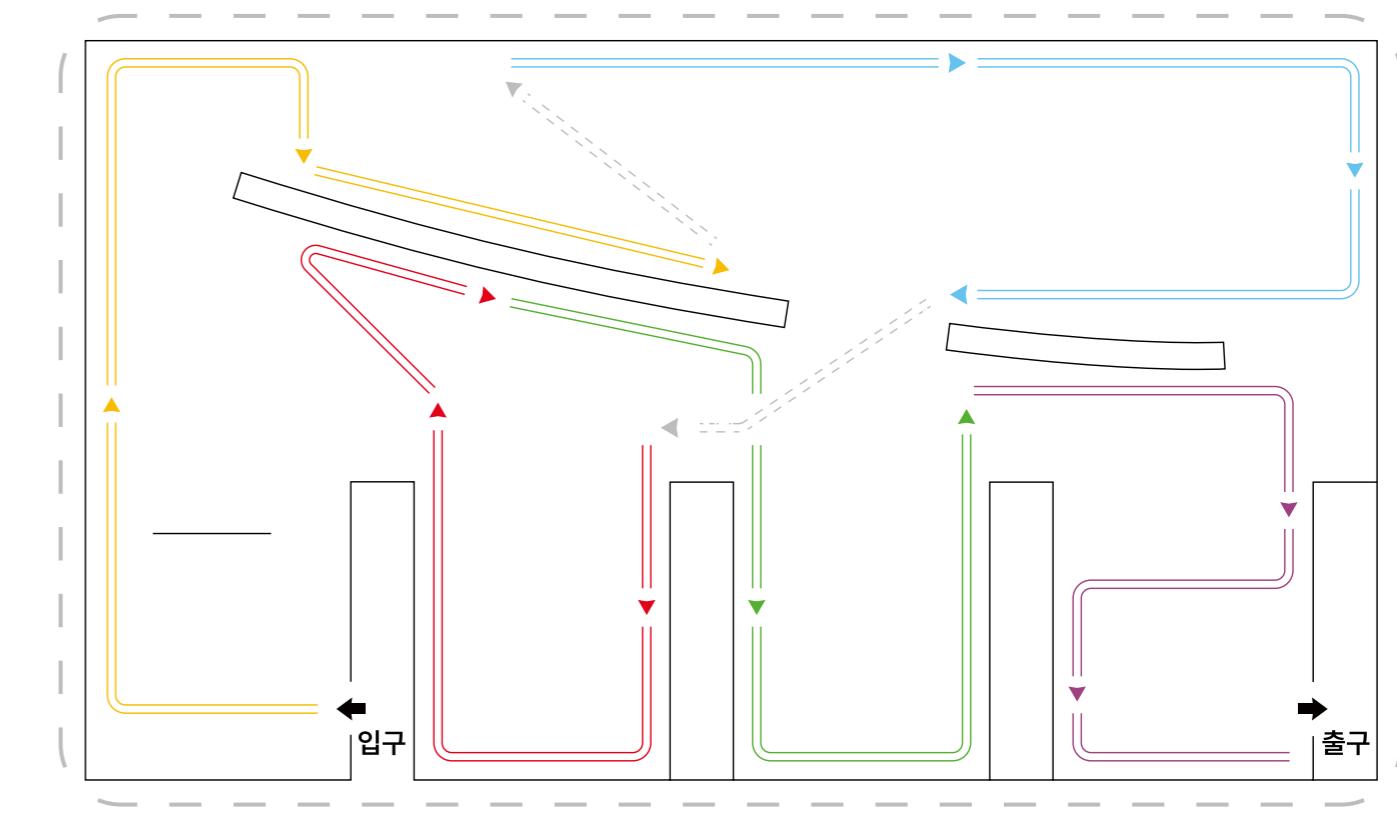
- 기간 : 2023. 06. 08.(목) — 2023. 08. 20.(일)
- 장소 : 경기도미술관 전시실 1~4
- 참여작가 : 김환기, 나혜석, 이중섭, 박수근, 장욱진, 이인성, 권진규 등 41명
- 참가비 : 무료 (사전예약 gmoma.ggcf.kr)
- 유아, 노약자, 장애인에 한하여 유모차, 휠체어를 무료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안내데스크 031-481-7000)

관람 동선



전시실 내 관람 동선

- 새로운 계절
- 자연으로부터
- 또 하나의 계절
- 향수의 계절
-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서문

경기도미술관은 이건희컬렉션 한국 근현대미술특별전 《사계》 전시를 연다. '이건희컬렉션'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모은 문화재와 미술 작품으로, 23,283점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근현대*** 미술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이건희 컬렉션의 작품들과 그 작품을 제작한 작가들의 다른 대표 작품도 함께 볼 수 있다.

이건희컬렉션 작품들은 이를 기증받은 국립현대미술관 등 여러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작품을 기증한 고 이건희 회장 가족들의 노력과 전시를 위해 작품을 빌려준 기관들의 노력 덕분이다. 무엇보다 작품 하나하나가 가진 귀한 가치야말로 이 전시가 열리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이번 전시는 이 작품들이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 역사에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모두가 아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1927년부터 2010년 사이의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90개 작품을 볼 수 있다. 나혜석, 김종태, 이인성,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장욱진, 천경자, 곽인식, 권진규, 박생광, 이응노, 강요배 등 작가 41명의 예술 작품을 5가지 주제로 전시한다. 크게 흔들리며 변화하는 시대에 작가들은 저마다 훌륭한 작품을 우리에게 남겼다. 힘든 시기에도 최고의 예술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작가들의 노력이 낳은 결과다.

전시의 제목인 《사계》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서양 전통 음악인 비발디의 「사계」에서 따온 것이다. 명작으로 오랫동안 사랑 받아 온 이 음악처럼 이번 전시의 작품들은 우리나라 미술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줄만큼 뛰어난 것들이다.

작품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을 뜻하는 실제 '사계'와 연관 지어 살펴볼 수 있다. 사계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조화로움, 자연, 향수, 순환 등의 주제로 범위를 넓혀 전시를 나누어 구성했다. 전시 구성 중 '또 하나의 계절'은 이건희컬렉션에 일부 포함된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로 꾸몄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 구성에 따라 작가나 시대의 차이를 비교해서 감상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작품들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걷고 있는 계절에 대해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근현대** : 역사에서 근대와 현대를 합쳐 부르는 말. 근대는 중세 이후부터 현대 사이의 시기(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876년부터 1945년까지)를 말하고, 생활 모습이나 사람들의 생각이 현재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부터 지금까지를 현대라고 본다.

새로운 계절

일제강점기 조선은 이전보다 서양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한 시기이다. 해외 유학을 다녀온 화가들이 서양 미술과 동양 미술의 제작 방식을 모두 사용해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였다. 모든 작가들이 서양 미술의 영향을 받았지만 작가마다 작품을 표현한 방식은 모두 다르다. <새로운 계절>에서는 이러한 작품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종우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양화를 받아들인 세대로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사실주의' 방식을 배워 표현했고, 김종태는 **유화***를 혼자 공부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선보였다. 구본웅, 이인성, 이쾌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서양화를 배웠던 작가들로 조선의 색과 주제를 서양 미술 방식으로 표현해 자신들의 대표 작품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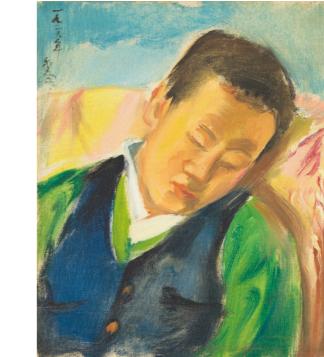
김기창과 이응노는 우리나라 **전통 회화***를 현대의 느낌으로 표현해 자신들만의 작품 분위기를 만들어나갔다. 김종영은 서예의 정신이 드러난 조각 작품을 만들었고, 백남준도 영상, 소리 등으로 만든 미디어 작품에 동양 문화를 담았다. 김홍수는 기쁨, 슬픔처럼 누구나 느끼는 감정을 서로 다른 요소를 이용해 조화롭게 표현했고, 문학진은 화면에 모양과 색을 어우러지게 배치하는 작품을 만들었다. 고영훈은 작품으로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세상에 없는 것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이 작품들은 대부분 완전히 다른 재료나 방식 등을 섞어서 서로 어우러지게 완성한 예술 작품들이다.

***유화** : 물감을 기름에 풀어서 그리는 그림

***전통 회화** : 우리나라 고유의 것을 우리나라 방식으로 그린 그림

김종태, <사내아이>

- 1929
- 캔버스에 유채, 43.7×36cm
-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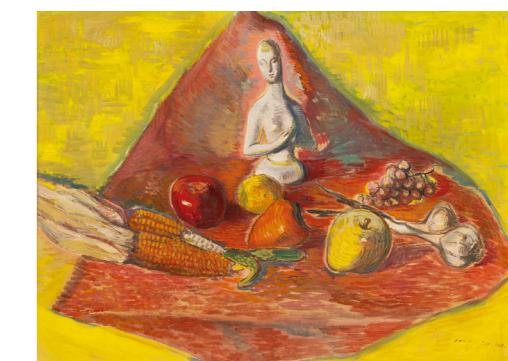
구본웅, <여인좌상>

- 1940년대
- 목판에 유채, 23×15cm
- 가나문화재단 소장



이인성, <석고상이 있는 풍경>

- 1934
- 종이에 수채, 55.2×74.6cm
- 대구미술관 이건희컬렉션



김기창, <소와 여인>

- 1960년대 초
 - 종이에 채색, 221×169.5cm
 -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재)운보문화재단
- * © = Copyright, 작품 이미지 사용의 권리는 '(재)운보문화재단'이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백남준, <TV 부처>

- 1974(2002)*
- 석불좌상, CRT TV 모니터, 폐쇄회로 카메라, 가변크기
-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 (2002) : <TV부처>는 1974년 처음 제작되었고, 이 백남준아트센터의 소장품은 2002년 다시 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연으로부터

동양이든 서양이든 자연은 언제나 예술가의 생각을 비추거나 자연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만들게 한다. 매일 새롭게 변화하면서도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자연의 모습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늘 자극하는 듯하다.

이상범, 노수현, 변관식은 우리나라 전통 회화의 방식을 따르면서도 현대의 모습으로 한국의 **산수***를 그렸다. **도상봉**은 과일, 꽃, 화병 등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그리는 정물화를 **고전주의*** 방식으로 표현했다. 오지호는 한국만의 자연환경에 맞는 **인상주의*** 미술로 자신만의 그림을 완성했으며, 유영국은 자연을 단순하게 표현한 **추상화*** 작품으로 새로운 형태를 찾아나갔다. 박고석은 산이 가진 기운을 거친 붓칠로 표현했고, 강요배는 힘들었던 우리나라 역사에 공감하며 제주의 자연을 그렸다. 류경채는 자연과 주고받은 감정을 추상화로 표현해 냈으며 이종상은 한국의 산과 강 모습을 추상화로 그려내며 자연의 기운을 담아내고자 했다. 여기서는 자연으로부터 시작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의 표현 방식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산수** : 산,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

***고전주의** : 예술 작품을 만드는 방식 중 단정하고 일정한 형태나 다른 것과의 조화를 이루는 완벽함을 표현하는 방식.

***인상주의** : 예술 작품을 만드는 방식 중 물체를 빛에 따라 달라지는 순간적인 색깔과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

***추상화** : 물체를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점, 선, 면, 색깔 등으로 표현한 그림

도상봉, <개나리>

- 1974
- 캔버스에 유채, 53.4×45.5cm
-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오지호, <여수항 풍경>

- 1978
- 캔버스에 유채, 90×64.7cm
-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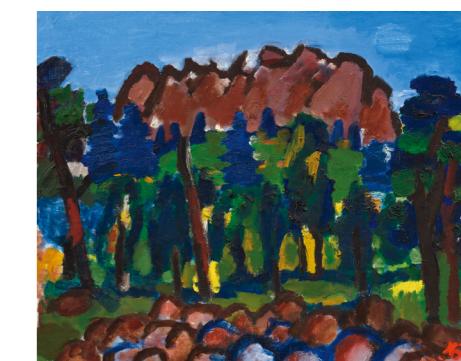
유영국, <작품>

- 1974
- 캔버스에 유채, 134.5×161.7cm
-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유영국미술문화재단



박고석, <외설악>

- 1980년대
- 캔버스에 유채, 60.5×73cm
-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강요배, <황파 1>

- 2002
-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161×259cm
- 경기도미술관 소장



또 하나의 계절

남성 작가 중심이던 우리나라 근현대 시기에는 여성이 작가가 되는 것조차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작가들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헤쳐 나갔다. <또 하나의 계절>에서는 이건희컬렉션에 포함된 여성 작가의 작품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나혜석**, 우리나라 여성으로서는 처음 조각을 만들기 시작한 조각가 **김정숙**, 여성의 눈으로 예술을 연구하고 표현한 **박래현**과 **천경자**, 추상화가 **방혜자** 등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모두 그 당시 예술이 갖는 일정한 특징을 담으면서도 자신들만의 예술 세계를 만든 여성 작가들이다. 여성으로서, 작가로서 자신의 삶을 당당히 이끌어 갔던 이들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도 아직 모르는 우리의 숨겨진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혜석, <자화상>

- 1928 추정
- 캔버스에 유채, 89×76cm
- 수원시립미술관 소장



김정숙, <비상>

- 1985
- 동, 73×69×30.4cm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박래현, <작품11>

- 1965
- 종이에 수묵채색, 168.3×134.5cm
- 리움미술관 소장



천경자, <누가 울어2>

- 1989
- 종이에 채색, 79×99cm
-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서울특별시



방혜자, <우주의 춤>

- 2010
- 캔버스, 부직포에 천연채색, 190×275cm
-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향수*의 계절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를 빼앗기고 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들을 겪어낸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 이 힘든 시대를 살았던 작가들의 작품에는 자연스레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가족에 대한 사랑,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담겨있다.

추억이 담긴 기억들을 색과 여러 요소들의 어루짐으로 표현한 윤중식, 그 시절을 살던 평범한 사람들과 풍경을 자신만의 그림으로 담아낸 박수근, 고된 삶을 견디면서도 작품 활동을 끝까지 이어간 이중섭. 이들의 작품이 불러일으키는 그 감정과 느낌이 바로 '향수'이다. 자연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단순한 풍경 위에 담아 낸 장욱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순수한 마음을 조각으로 선보인 전뢰진, 회색을 주로 사용해 예스럽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권옥연. 이들 작품은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잊고 있던 감정들을 일깨운다.

박수근, <절구질하는 여인>

- 1957
- 캔버스에 유채, 130×97cm
-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박수근연구소



이중섭, <오줌싸개와 닭과 개구리>

- 1950년대 전반
- 종이에 유채, 28×40cm
-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장욱진, <까치>

- 1987
- 캔버스에 유채, 41×31.9cm
-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장욱진미술문화재단



*향수 :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듯 지난 시간에 대한 그리운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 '향수에 젖는다'고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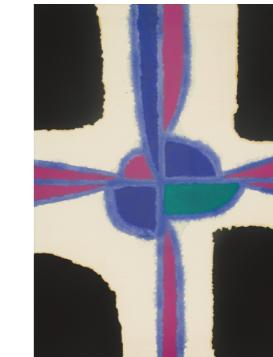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으로 이어진다. 순서대로 흐르다가 다시 반복되는 계절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느낀다. 계절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듯, 우리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 과정은 작가들이 자신만의 예술을 만들어가는 것과도 비슷하다.

한국적 회화를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 민족의 **혼***을 작품에 담게 된 박생광, 학문을 닦고 훈련하듯 작품을 완성한 김환기, 무언가를 똑같이 표현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기본 바탕을 연구한 권진규, 물질의 성질을 실험하며 표현한 곽인식, 갈색을 주로 사용하여 시골의 정서를 추상화로 담아낸 김경, 인간이 사는 세계를 깊이 살펴보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한 김영주, 종교를 믿는 것처럼 세상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노력을 작품에 담아 낸 하인두와 최종태. 복잡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은 덜어내고 정돈된 작품들,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된다.

김환기, <Untitled* (15-VII-69 #90)>

- 1969
- 캔버스에 유채, 143×107.5cm
-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Untitled : 무제라고도 한다. 제목이 없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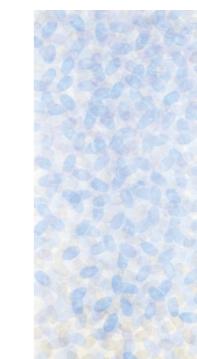
권진규, <이순아>

- 1968
- 테라코타, 48×34×22cm
-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권진규기념사업회·이정훈



곽인식, <무제>

- 1980
- 캔버스, 종이에 수채, 166×100cm
- 국립현대미술관 이건희컬렉션



*혼 : 사람의 몸과 마음, 정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

이건희컬렉션 한국 근현대미술 특별전 《사계》

쉽게 읽는 전시

기획

조민화, 이숙형

쉬운 글 전환

소소한 소통

편집디자인

김혜린

